

2016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한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하나님의 시(詩)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한다.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애정 어린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혀는 글썽씨가 뛰어난 작가의 붓끝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 나타나신 그분의 온 존재에 따라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 안에 뿌려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의 왕국인 한 영역으로 발전하시며, 확대된 왕국으로 증가하시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함으로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하고,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하며, 혼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메시지 1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

(1)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대한 이상에 의해 통제받음

성경: 엡 1:22-23, 2:21-22, 3:19, 4:10, 12, 16, 골 2:19, 3:15, 계 21:10

- I.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그분 자신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엡 4:12, 16.
 - A. 이 유기적인 몸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충만하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건축된다.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과 실재이다 — 골 3:11, 엡 4:4.
 - B. 이러한 몸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된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적시셔서,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 되게 하신다 — 요 15:1, 5, 8상, 고후 13:14, 엡 3:19.
- II.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한 조성체이다 — 엡 4:4-6.
 - A.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사람이 함께 섞이고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 엡 1:23, 4:12, 16.
 - B. 몸을 건축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로 조성되는 것이다 — 고전 6:17, 롬 8:16.
 1. 이 조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이다 — 요 14:20.
 2. 이러한 조성은 신성이 인성 안으로 조성되어 사람의 거처가 되고, 인성이 신성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문제이다 — 엡 3:16-17, 2:21-22, 요 14:23, 계 21:2-3, 22.
 - C.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면서 인간적인 유기체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 요 15:1, 엡 1:23, 3:19-21.
- III.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한 몸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몸은 자신의 표현을 얻기 원하시고 사탄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룬다 — 롬 12:4-5, 고전 12:12, 27, 엡 1:22-23, 4:4, 16, 골 1:18, 2:19, 창 1:26-28.
 - A. 우리 안에서의 삼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 엡 3:16-21, 롬 8:11, 12:4-5.
 - B. 새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새 언약의 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할 가능성이 없다 — 고전 12:12-27, 고후 3:6, 8-9, 4:1, 5:18.

- C. 몸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몸이 없다면 교회는 무의미하며 아무 가치가 없다 — 롬 12:4-5, 16:1, 고전 1:2, 12:12-13, 27.
- D.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몸을 모르고, 몸을 관심하지 않으며,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 엡 1:17-23, 고전 12:24-27.
- E. 몸을 아는 것이 합당한 주님의 회복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하나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엡 1:23, 4:4.
- F. 주님은 이 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기를 갈망하신다 — 롬 12:4-5, 16:16, 고전 1:2, 12:27.
 - 1.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지방의 터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충만한 몸이다 — 엡 1:23, 3:19.
 - 2. 몸의 실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 엡 1:23, 4:16, 5:27, 30, 계 19:7.

IV. 몸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과 일을 통제하는 법칙이다 — 엡 4:4, 16, 고전 12:4-6, 12-13, 27.

- A. 교회와 사역과 일은 다 몸의 근거 위에 있다 — 엡 1:23, 4:16, 골 3:15.
 - 1. 교회들은 지방적으로 표현된 몸이고, 사역은 기능을 발휘하는 몸이며, 일은 증가를 추구하는 몸이다 — 행 13:1-2, 21:19.
 - 2. 교회는 소규모의 몸의 생활이고, 사역은 봉사에 있어서 몸의 기능 발휘이며, 일은 성장에 있어서 몸의 뻗어 나감이다 — 고전 1:2, 12:27, 16:10, 고후 3:6.
- B. 교회와 사역과 일은 그 존재의 근원이 몸이고, 몸 안에서 제 위치를 찾으며, 몸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 — 롬 12:4-5, 골 2:19, 3:15.
 - 1. 이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원칙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 2. 몸과의 연관성과 몸의 지체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이 원칙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교회나 사역이나 일이 있을 수 없다.

V.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 오직 한 몸이 있으시다는 진리에 근거를 둔다 — 엡 1:23, 4:4.

- A. 한 몸은 여러 지방에서 그 지방의 교회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교회이다 — 고전 10:32하, 계 1:4, 11.
- B.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회복은 몸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개인이나 단지 어떤 개별적인 한 지방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엡 4:16, 골 2:19.
- C. 우리의 고려에 있어서, 몸이 첫째가 되어야 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다음이어야 한다 — 마 16:18, 18:17, 엡 2:21-22.
- D.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시는 절차이다 — 고전 12:12-13, 1:2, 롬 12:4-5, 16:1, 4-5, 16하.
- E.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우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 엡 4:4.

1.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몸의 한 부분, 곧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이다 — 고전 1:2, 12:27.
2. 우주적인 방면에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한 몸이며, 지방적인 방면에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이다 — 롬 12:4-5, 16:1, 16.
3.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그분 자신의 한 부분을 갖고 계신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며, 이 모든 부분들이 몸을 구성한다 — 엡 1:23, 2:21-22.

VI.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 엡 1:17-23, 4:16, 계 21:10.

A.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 — 엡 1:22-23, 3:19, 골 3:11.

1.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곧 그분의 충만이다 — 엡 1:22-23, 3:19, 4:10.
2.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곧 표현이다 — 엡 1:22-23, 4:10.
 - a.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어지셨고, 교회는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 엡 1:23.
 - b. 그리스도 자신은 우주적으로 방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몸은 우주적으로 방대하시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것은 몸 또한 우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엡 3:18-19, 4:16.
 - c. 에베소서 4장 10절은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 (1) ‘모든 것’은 분명히 온 우주를 포함한다.
 - (2)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결과는 모든 것, 곧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B.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그리고 4장 10절에 제시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1. 우리에게 몸의 조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우주적인 조망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망은 매우 좁을지 모른다 — 엡 1:23.
2. 우리는 우리의 작고 좁은 자아로부터 나와서 황홀경 안에 있으면서, 우주적이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보고 만져야 한다 — 엡 3:19.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방대함에 대한 이상에 압도되어야 한다 — 계 21:10.
 - a. 영 안에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 새 예루살렘을 본 요한처럼, 우리도 영 안에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져야 한다 — 계 21:10, 엡 1:22-23.
 - b.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주적인 몸의 조망을 가져야 한다. 이 우주적인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에 떠올랐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것이다 — 엡 1:17-23, 계 21:10.
4.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우주적인 몸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엡 1:22-23, 4:12, 16, 계 21:2, 10.